

인권정보자료실
NSL1.71

창실없는 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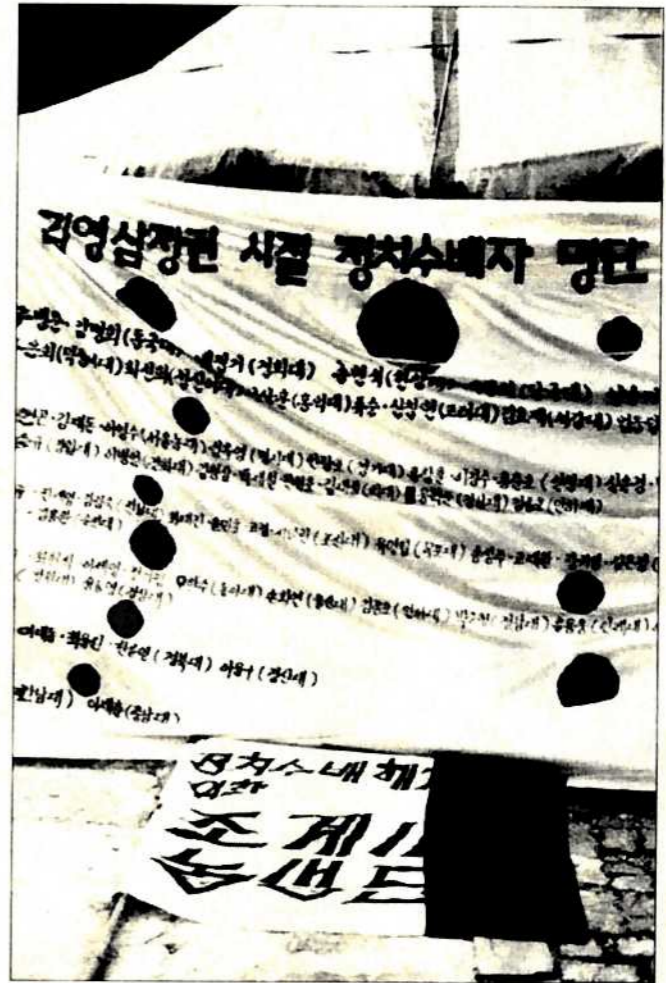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투쟁 500일...



NSL1.71

차 사 어 는 가 오 이 리 버 는 감 후

98년 여름에서
99년 겨울까지



정치수배해제 조계사농성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사내 TEL. 732-6880~1
 free66@netsgo.com 수배해제(Now), ncyc93(천)
 Homepage. <http://myhome.netsgo.com/free66>



차 례

< 2 >

발간사

< 4 >



농성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오창규 < 8 >

홍준호 < 9 >

유병문 < 10 >

이창희 < 11 >

한유진 < 12 >

박재철 < 13 >

김대성 < 14 >

최태진 < 15 >

이영수 < 16 >

김재돈 < 17 >

김현곤 < 18 >

최선희 < 19 >

김성숙 < 20 >

엽동렬 < 20 >



농성단이 걸어온 나날들...

조계사 농성 500일, 갇힌 하늘아래 우리 투쟁은... < 24 >

기억 저편, 농성투쟁의 지난날들 < 32 >

농성단, 이런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 40 >

청년의 자유를 가둔 것들

우리를 옴아맨 실체는 국가보안법 < 48 >

인터뷰 - 종이 한 장의 의미 < 52 >

500여일의 농성투쟁 평가

농성투쟁 평가 < 58 >

농성단과 함께한 사람들...

조계사의 자식들에게 < 68 >

아들아, 장한 딸들아! < 70 >

순수와 열정, 헌신과 투혼의 청년들 < 72 >

강인한 의지 앞에는 운명도 길을 비킨다 < 78 >

내가 본 수배자, 그들을 고발한다!? < 80 >

이들 역시 자기 자리에 선 佛보살님들입니다 < 82 >

푸른 의지의 행기를 흠모하며 < 86 >

늘 변함없는 모습 < 88 >

수배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90 >

나도 한마디 < 92 >

감사합니다 < 96 >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삭줍는 농부의 마음과 손길처럼

오창교 · 농성단장, 수배7년



99년 12월 10일 현재,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투쟁이 496 일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얼마후면 500일이라는 학생운동 사상 초유의 장기농성을 이루게 된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17개월에 이르는 초장기 농성이 그 막바지에 다달아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보면 방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대가가 썩 만족할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수확하고 있는 성과들이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좌절과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의 장정이었다. 우리의 농성기록이라는 것이 세상에 거리낌없이 내보일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기에 역사의 후미진 곳일지라도 우리의 흔적을 남겨두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땀 한땀 떠온 500일에 이르는 농성투쟁을 자료집으로 기록해 두고자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들만이 만들어 온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 동지들, 선후배들, 인권·사회단체와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값진 투쟁이라 생각한다. 특히, 불교계로부터 받은 물심양면의 지원은 참으로 인상깊은 연대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렇듯 우리가 좌절의 순간을 딛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올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훈훈한 정을 잘 간직하고 한번 믿음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일평생 의리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재삼 다짐해본다.



우리는 이른바 '명예로운 자유'를 찾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씩 수배생활을 해왔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거나 다름없는 이 수배의 삶을 피할 수만 있었으면 아마 피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진리를 터득케 하였다. 분단과 예측과 굴종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도서관보다는 거리와 더 가깝게 만들었듯이, 치졸한 자유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명예와 자존을 지킬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 역사의 엄명을 피하지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서 우리의 등에 지고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듯이, 우리의 농성투쟁도 이제 그 마지막 결실점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이삭을 줍는 농부의 마음과 손길처럼 세심하게 우리의 흔적들을 간추려야 할 것이다.

그 결실의 낱알 중에는 알곡과 쭉정이 함께 섞여있을 수 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반드시 수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와 자존일 것이다. 나 한사람의 명예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책임져야 할 정신을 우리부터 사수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정신을 고스란히 심장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주인된 삶을 영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이 땅 질곡의 역사를 걷어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농성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정치수배해제 조계사농성단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오 창 규

형의 나이는 해를 넘기면 이제 서른 넷이다. 벌써 장가가서 오손도손 살 나이고, 사회적으로 한창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나이다. 그런데 창규 형은 아직도 학생운동 시절에 내려진 수배자인 채로 벌써 7년이란 세월이 보내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7년이란 수배생활을 버티었을까? 이 7년의 세월이야말로 창규 형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인내와 끈기! 그런데 이 말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7년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보냈다고 할 것인가? 아니다. 창규 형은 "인간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성장시켜왔다. 수배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복학생으로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서른을 훌쩍 넘기도록 수배생활을 하는 동안 형 스스로에게 부닥친 시련과 유혹, 지나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순간에는 얼마나 인간을 나약하고 하고 동요하게 만들었을까? 7년이라는 세월 우연마저도 형을 지나쳐갔다. 작은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운동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창규 형의 모습은 그 긴 세월을 우연스럽게 비껴간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 관리를 통해 이겨낸 것임을 알게 된다.

나는 수배자로써 형을 만났고 아직까지 수배자인 처지에서 수배자인 형을 바라보고 있다. 남들은 쉽게 넘겨버릴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수배자가 가지게 되는 삶의 그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놓인 이 수배라는 처지에 수배해제라는 햇살이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조건만을 탓하고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다.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창규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들을 잊어버리곤 한다. 형의 말대로 21세기에는 더 이상 수배자가 아니기를 빌어본다. <유 병 문>



홍 춘 호

75년 음력 6월 13일 충북 단양에서 태어난 춘호는 94년 인천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97년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당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가보안법 수배자가 되어 3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국문과에 입학한 청년 문학도 홍춘호. 그는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한 농성단의 막둥이다. 가끔씩 그는 섹시한(?) 엉덩이, 도톰한 입술, 늘씬한 몸매 덕에 바람둥이로 통하기도 하지만 실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첫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사는 풋내기 총각이다. 농성단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춘호.

그에 대한 소개는 다음 시를 통해 하는 것이 간결하고 분명하겠다. 그의 인생은 '걸레'라는 자작시에서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 <박 재 철>

지나온 역사의 오욕과
가야할 앞 길의 오염
그 얼마나고 묻지 않겠다
오로지 걸레가 되어
단 한 군데라도
닫고 서있는 우리들의 바닥을 닦고 싶다.

■ 춘호의 자작시 중에서

유 병 문



우리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에서 집행국장을 맡고 있으며 분공수행이나 규율을 지키는데 모범이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다. 아침 기상 때도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위를 깨우려 하고 회의시간이나 식사시간에도 가장 먼저 나서서 챙기는 한마디로 술선수범이 몸에 배어있다. 신체적으로 큰 특징은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민첩하고 체력단련에도 의욕을 보인다. 특히, 단전호흡을 통한 참선수련에는 농성단원 중에 가장 용맹정진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사리가 분명하고 맺고 끊음이 있어 함께 있으면 경쾌한 느낌을 받는다.

담배는 전혀 안하고 술은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조금씩 마신다. 만약 술을 좋아했다면 남들만큼 털털했을까. 글썽 지금 병문의의 모습에서는 잘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사람을 위한 규율,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원칙이야말로 조직을 훈훈하게 하고 피를 돌게 만들지 않을까 싶다.

건국 최초 수배자 시집 '양수리에서'를 펴낸 그는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시를 쓰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자신에게 용돈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몇 개월의 옥고를 치른 애인을 끄적이도 아끼고 챙긴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꼬옥 챙겨 두었다가 애인에게 건내준다. 대체로 사람을 잘 챙기는 편인데 챙기는 행위가 소중하지만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때론 직설적인 언행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배울 점이 더 많다. 참고육 2세대로서 일찍 운동을 알았고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운동의 길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운동적 삶을 끈끈하게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의의 한길에서 자랑스럽게 팔목상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 창 규>

- 1972년 5월 5일 경남 거제 출생
- 1996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 1996년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 1996년 연대항쟁 주도 혐의로 현재까지 수배 4년째.

이 장 희



농성단에서 제일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 장희형은 69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던 88년 단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후배손님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난 88년도에 대학 다녔는데 너 그때 뛰었니?" 99학번 후배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장희형 "너 코 짤짤 흘리고 있을 때 나는 조국을 위해 데모 했단다. 하하." 이런 맛에 살지요.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신임을 얻은 형은 91년 주변의 수많은 걱정과 우려를 일축하고 놀랍게도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형은 질 높은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서총련 중집생활, 이어 97년에는 한총련 정책위원으로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몰리게 되면서 정식으로 수배자가 되어 어려운 수배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5일 조계사로 들어와 농성단에 결합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힘든 농성단에 선배다음 모범으로 많은 힘을 주었지만 농성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에게 힘든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수배생활 3년째를 맞고 있는데 학생운동 11년의 전통만큼이나 농성단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사람중 한 명입니다. 인간관계도 폭넓고 다양해 그야말로 '마당발'입니다.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욕심도 많은 사람이라 주변사람들을 적잖게 귀찮게 굴기도 하는데 농성단원 중에서도 여러 명이 당했습니다.

가끔 교육관 5층 옥상에서 바깥을 내다 볼 때면 "내가 조계사에서 벗어나면 저 앞 종로 거리에서 꼭 술한잔 하고 만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리고 '이 앞 목욕탕, 해탈문 앞 공원, 인사동 골목 어느 술집' 하는 식으로 가보고 싶은 곳을 짚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이 거리를 활보하고 싶어하는 형의 장래희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운동의 과정에서 또 이곳에서의 농성생활을 통해 학생운동의 자기도 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깨닫고 평생토록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수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운동의 과정에서 형의 건승을 빕니다. <한 유 진>



한 유 진

이 사람(?)은 경북 고령 산골짜에서 71년 2월 10일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트리며 태어났다. 성도 한씨고 얼굴도 진짜 큰 우렁아인지라 주변에서 '한 인물'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살아갈 날이 많은 이 청년의 미래가 한창 남았기에 독자들은 기대를 버리지 마시라.

이미 조국과 민중을 위해 94년 쌀수입개방반대를 외치다가 6년째 수배생활 중인 그는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 일원으로써 그 자체로 '한 인물'로써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소'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채(왜냐구? 일단 한 번 만나보시라) 사람계와 동물계를 방황하고 있다. 하기에 행동도 느리다. 일소처럼 묵묵히 힘줄계 부지런한 장점도 있다.

농성투쟁이 재미있고 즐겁다(과연 그럴까? 화나면 식기를 던지는 버릇이 있다)는 그는 영화감독이 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영화와 관련된 공부도 하고 누군가 촬영을 오면 자기가 찍어주겠다고 나뉜다.

따라서, 우리는 영화사의 '한 인물'을 기원해야 한다. "나는 정치수배자의 옷을 벗고 거리를 누비고 싶다", "우리 소는 젖소가 아닌 누렁소" 라는 등 정체불명의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거장 한유진 감독의 모습을 말이다.

소박하게도 자유롭게 되면 당장하고 싶은 일이 학교 후배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잔 먹고 싶다고 한다. (마치 어느 정치인의 접대용 인터뷰를 대하는 듯하다) 이렇게 소박하고 꿈많은 청년에게 아직도 애인이 없다. 91년 미인 많았던 경원대학교 미술대 환경조소학과에 입학한 이래 짝사랑하며 발을 동동 굴리던 시절도 많았다던데,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고 말았으니 가슴이 아프다.

어디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해주시라. 영딩이를 보면 일 잘하게 생겼으니 훗날(?) 가정에 큰 복을 안길 사람이다. 믿어주시라. 우리 모두 한유진 동지의 인생에 친근한 관심자가 되어주자.

<이 창 회>



박 재 철

도종환님은 그의 시 '부드러운 직선에서' 휘어지지 않는 정신들이 - 곧게 다듬어진 석가래들이 - 만들어낸 유려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진정 참담게 고통 받은 사람은 드넓은 품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깊은 이치에, 나는 사색의 언저리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보이지 않게 생활의 곳곳에서 '동지를 가르쳐 쓰고, 고쳐쓰고, 배워쓰는' 한 사람을 올려 놓는다. 동료들은 그를 불러 '까시'라 한다.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가 풍기는 '밥묵었나, 불꺼라, 자자'라는 이미지에다 '한 후까시'하는 언행 때문이다. 형은 정말 곧게 가시뿔혀 있다. 나태와 관성에 대하여, 동지를 얻는 태도와 자세에서, 때론 자신을 낮추어 즐거움을 주려 가끔은 과장된 '까시'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그는 부드럽다.

형은 88년 영남대에 입학했으나 중도에 때려치우고 한국의국어대 90학번이 되었다. 91년은 노태우 정권이 집권말기 광폭한 탄압으로 수많은 열사들이 숨겨졌던 시기이다. 재철이 형은 당시 총리였던 정원석이 외대를 방문했을 때, 저지투쟁을 벌인 이유로 양심수가 되었었다. 정론직필의 꿈을 품고 대학신문사 생활을 하며 운동을 배워온 형은 95년 전대기련 의장 활동, 97년 5기 한총련 교육선전국원으로 활동하다 수배되었다.

서른 하나의 나이가 주는 이끌림이었을까, 수배생활 내내 아침마다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들으며 지냈다는 그는 생선가시마냥 뼈뺀 사람이다. 사람좋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하루가 멀다하고 부어넣은 술에다, 수배생활을 포함해 학생운동 10여년 동안 활동하며 축낸 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위장이 많이 상해있다. 먹지 못하는 고통은 새삼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지들이 관심을 기울여 챙겨주어야 할 점이다. 이 건강문제 때문에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형의 향후 10년 포부가 뼈꺼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운동을 길에서 10년의 포부가 어떤 의미인지 곱씹게 해준 형에게 후배로서의 남다른 애정을 실어본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민주노총 대표선발 결승전이 열렸던, 올해 7월 17일날 밤부터 맺어진 형과의 인연이 깊고 넓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 그는 자신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품어내고 있다. <홍 춘 호>



김 대 성

▲ 언제 어디서 태어났나요? 1972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나이 중의 사나이입니다.

▲ 수배사유는 ? 1997년 그는 외대 경상대 학생회장으로 당선,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활동 중, 그로 인해 이적단체 구성 가입건으로 3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 부모님들은 신림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큰누나는 안타깝게도 대성이가 수배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동생은 청주대 연극영화학과에서 연출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농성생활에서의 소감? 대학에 다닐 때에는 한 학교의 학우들과 생활과 공부를 하였는데 이곳 농성장에는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다보니 다양한 지역의 성격을 알게되었고 많은 경험을 쌓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농성생활이 정리되면 ? 단기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고 평생동안에는 그가 그리도 하고 싶어했던 노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아름답습니다)

▲ 대성의 성격은? 은은한 모과향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듯 재미있는 듯 하는 친구입니다. 항상 책을 보면서 사색을 하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해 가는 특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최 태 진>



최 태 진

▶ 언제 어디서 태어났나요? 1971년 10월 14일 산 좋고 물 좋은 남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장인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담양에 계시고 지금은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 수배사유는 무엇이지요? 96년도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전남 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해 연대항쟁을 주도했다고 해서 수배가 되었구요. 지금까지 4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수배생활중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자유가 아닐까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가끔씩 답답함이 밀려들때가 있었습니다.

▶ 농성에 대한 간략한 소감? 조계사라는 장소에 이렇게 들어와 생활하게 될지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체 단련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8·15전에는 수배해체에 많은 힘을 기울려 왔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집중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농성단에서 맡은 역할이 총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나긴 농성생활이 어지다 보니 살림이 제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총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지들의 생활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 농성 동지들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사람은? 모두 워낙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래도 꼭집어 낸다면 대성이라는 후배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 농성생활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8·15시기에 수가협 부모님들이 청와대로, 검찰로, 법무부로, 국민회의로 그 뜨거운 여름 햇살을 이기며 술한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천막에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 수배가 끝나면? 마음껏 회포 한번 풀어보았으면 좋겠네요.

▶ 향후 인생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땅을 지키는 농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영 수



지난 해 8월, 7명의 수배자들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래 전국 각지의 수배자들이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성을 한 지도 500여 일이 되어갑니다.

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은 전대협 세대에서부터 한총련 세대까지, 광주에서 서울에서 대구에서 경향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철폐'의 구호 아래 비록 갇힌 몸일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결의를 모아 참으로 열심히 투쟁을 일구어왔습니다. 실질적인 수배해제 쟁취만이 농성단의 목표가 아니라면 조계사 농성은 자랑스런 투쟁의 승리로 만인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 누나들, 그리고 춘호...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이 떠 오릅니다.

'더 큰 결의와 더 높은 각오로 조계사 농성단원으로서, 5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부여된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투쟁의 포문을 엽니다.' 지난 1월 14일 상도동 진격투쟁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제가 동지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그렇게 그리던 학교로 돌아온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요리조리 꼼꼼히 구상하고 점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부닥치니 생각만큼 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고학번이 되어버리고 거기에다 과거의 경력을 전해들은 탓인지 왠지 내게 거리감을 두려던 99학번 새내기들도 이제는 나를 만만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부대끼며 조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참된 삶을 이야기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그렇게 후배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부대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금 희망의 단초들을 발견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시 주위의 사람들을 밀천삼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80년대 전대협의 역사적 권위는 인정하지만 90년대 한총련의 애국적 의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속에서 단지 '한총련' 3음절의 고수가 아니라 전대협-한총련의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그리고 민주와 자주통일의 기치를 품에 안고 다시금 희망의 씨앗들을 뿌리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곳에서부터.

김 재 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 일수가 1년을 넘어 500일로 향하고 있다.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다. 조계사농성을 처음 시작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나를 포함한 7명의 동지들..... 그리고 하나, 둘 늘어갔던 농성 식구들. 조계사에서 퇴약별 아래서나, 폭우와 눈발이 몰아칠 때에도 그 안에서 기나긴 농성 생활을 하였다.

거듭된 기만적인 사면극에 대한 분노의 의지를 담아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치렀었다. '정치수배해제·양심수 전원석방·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서명전도 펼쳤고 수 차례의 단식도 하였고 매일 108배와 여러 차례 3000배도 올렸다. 대책위를 꾸려 사회민주단체 어르신들과 함께 투쟁도 하였다. 참으로 많은 것을 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동지들은 서로의 신념과 의리를 한층 더 높이 쌓아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리운 추억으로 회상하기엔 시대의 아픔이 너무 크기만 하다.

내가 영수와 함께 조계사를 빠져나와 김영삼의 집 근처 상도터널에서 '정치수배해제', '김영삼처벌'을 외쳤던 일도 벌써 한 해 전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 투쟁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규탄이었고, 부정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초래시킨 김영삼을 처벌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다.

말로만 '개혁', '통일'을 부르짖고 겉으로만 '인권'인 척하는 김대중정권의 허상 앞에 심대한 분노를 느낀다. 사랑하는 동지들의 농성일 수가 하루하루를 더해감에 따라 현정권에 대한 분노 또한 겹겹이 쌓여만 간다. 지금은 수배자와 구속자에서 벗어나 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허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고 정치수배자들이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몸과 정신은 수배·구속자들의 그것과 하동 다를 바가 없기에 비통함은 결코 작지 않다.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여 무엇하나 얻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짓은 멈출 수 없다.

조계사 농성단 동지들의 얼굴 한명, 한명을 떠올리며...



김 현 곤

이 사람, 김현곤. 그는 척 보기에 큰아들 장가보낼 걱정으로 한숨 많은 중늙은이 뻔로 보인다. 깡마른 체구, 꾸글꾸글하면서도 거무죽죽한 얼굴이 딱 그렇다. 더구나 식성은 어떤가.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풋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먹는 그 맛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김현곤 그는 완벽한 토종식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금의 이색식단도 용납하지 않는 영락없는 영감이다.

그는 97년 한총련 농민학생연대 사업을 하다가 수배자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농활을 주도했다는 것이 그의 수배사유이다. 그래서 그는 몹시 분개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몇몇 대학의 경우에는 아예 학점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는 농활을 이적활동이라며 수배자로 내몰고 있으니 정말 분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김현곤, 그는 조계사 원년 멤버이다. 앞서 그와 함께 농성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꼬장꼬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가 2남 1녀 중 막내인 특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그를 알기 위해선 그의 어머니를 보아야 한다. 그의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정도를 넘어 서서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한 사리판단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를 가지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다. 그런 어머니의 자식이므로 그도 분명 훌륭한 청년일 것이다.

그는 농사꾼 아버지의 '농사꾼만은 되지 말라'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성장해 서울대 농대에 합격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러나 결코 아버지와는 다른 농사꾼이 될 꿈을 키우고 있다. 그 꿈을 당장 현실로 옮길 수 없는 수배자의 처지에 있는 지금은, 꿈을 가로막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무한한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대중에게 피의 불벼락을 내릴까, 수배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작살낼까 고민하고 있다. 김대중은 그를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김현곤, 그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민운동을 열심히 할 것임은 확실하다. 10년 뒤에 아들 딸 옆에 세우고(결코 업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업어달라고 칭얼대는 아들에게 "자주성을 길러야지!"라고 호통을 칠 것 같다.) 이웃집 농군과 함께 논두렁 발두렁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최 선 희>



최 선 희

토끼처럼 귀엽고 공주처럼 예쁘지만 성격은 소박하고 털털한 최선희를 소개해볼까 한다. 선희는 72년에 충남 예산에서 딸셋에 장녀로 출생하여 90년도에 성신여대 통계학과에 입학했다. 성실한 학생회 활동과 선전 실무력을 인정받아 97년 한총련 교육 선전사업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다 수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99년 6월에 조계사 농성단에 결합하여 지금 현재까지 농성투쟁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선희는 첫 인상이 토끼처럼 귀엽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재미있게 상대방에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선희와 함께 있으면 심심하지 않다. 그리고 워낙 친성적으로 착한 성격이라 굳은 일도 불평없이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 준다. 외모는 공주처럼 예쁘지만 다리통은 마징가처럼 튼튼하여 어렵고 힘든 일도 척척 잘 해낸다.

어려서부터 수학, 계산, 정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정리, 주변 정리정돈을 습관처럼 깔끔하게 해 놓는다. 그러다 보니 남성동지들이 무엇을 찾을때는 꼭 선희야 하고 부르게 된다. 공부할때도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하며 책을 읽고 토론도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진행하는 습성이 붙어 있다. 그런데 자료정리 주변정리는 깔끔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외모(머리카락, 옷...)는 별로 가फल 줄 모른다. 화장도 잘하는 편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박하고 수수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어려서부터 남자로 태어나는게 꿈이었다고 한다. 돈만 있으면 성전환 수술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집안에 딸만 셋이라 그런지 사회적으로 남녀차별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다. 어쨌든 어디를 가서는 씩씩하게 잘버티며 생활할수 있는 아이이다. 애인도 같은 수배자로 여기 조계사 농성단에 결합해 있다. 애인이 함께 농성을 하고 있어도 별로 어색하지 않고 털털하게 생활하여 특이한 애인사이라고 주변사람들이 놀려주기도 한다.

토끼처럼 귀엽고 공주처럼 예쁘지만 성격은 소박하고 털털한 최선희는 우리 조계사 농성단의 꽃이다. 그러나 화려하기만한 꽃이 아니라 예쁘고 소박하며 질긴 생명력을 가진 들꽃이다.

<김 현 곤>

농성단원들을 소개합니다



김 성 속

그녀는 7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결절한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전남대 가정관리학과에 입학하였는데 나중에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 꼭 어울리지 않는 것만도 아니다. 전남대 학 신문사 편집장의 경력답게 결코 뒤지지 않는 말발로 못 남성들의 기를 꺾는데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곤 하였다. 그러던 그녀가 그렇게 애인에게 순종적일 것이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남의 눈, 아니 남의 코와 귀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데서나 방귀를 뽕뽕 끼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그녀지만 농성단 막둥이 흥 아무개와 입을 빌자면 '터프하면서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한다. 적절한 시점에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 대불련 옥상에서 따뜻한 차 한잔의 데이트를 청할 줄 알았던 그녀였다고. 아마도 흥가는 그녀에게 꼭 빠져있는 듯 하다.

작년 8월부터 약 9개월의 농성을 하다가 출사(出寺)하여 검거되기까지 그녀는 농성단 유일의 홍일점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물론 뒤이어 내가 합류하긴 했지만 난 홍일점이기보다는 (아중)마일점이었다)

이제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하고픈 한마디.

***사랑은 둘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썩썩썩베리***

<최 선 회>



엽 동 렬

엽선수... 그에게 나를 보낸다.

그는 조계사 농성단의 초기 멤버이다.

건국대를 91년도에 입학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수배되어 수배생활을 2년째 하다가 98년 8월에 조계사에 잠입했다.

농성단에서 총무역할을 한 사람은 모두 3명인데 나름대로 모두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털털한 성격에 뒤편지 대충대충 그러나 신속하고 빈틈없이 일을 추진하여 농성단의 1대 총무로서 안살림을 도맡아 해왔다. 농성단에서 그의 족구 실력은 베테랑급이다. 가끔 족구 시합이 열릴때면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며 실력을 마음껏 뽐낸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엽선수이다. 엽선수도 상당히 곡차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아직 취한 모습을 본적이 없다는 말도 있다.

엽선수는 99년 3월 법무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조계사에서 탈출하여 학교에 복학하여 못다한 학업을 계속하던중 경찰에 검거되고 이후 기소유로 풀려나와 농성단의 외부 간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후배들을 위해 못다한 청춘을 불사르고 있다.

고향은 전라도 장성, 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인데 졸업후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청년이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지닌 그이기에 앞으로도 그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김 대 성>

농성단이 걸어온 나날들...



조계사 농성투쟁 500일! 갈힌 하늘아래 우리 투쟁은...

글·그림 아줌마

始

·
·
·

98년 8월 9일
두근거리는 마음의 청년 여덟 명
조계사 대웅전 처마 밑에 등지를 틀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수 년 간의 수배생활 끝에 찾아든 조계사에서
여름을 지나 겨울을 맞고
다시 두 번째의 겨울마저 맞게 되리라는 것을
황금같은 청춘의 시절
500일 가까운 날을
갈힌 하늘 아래 묶여있으리라는 것을



눈물겨운 상봉 그림던 가족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얼마만이나 얼굴 좀 만져보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 자식이 제집 뉘두고 한 데 잠을 잔단 말이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썩은 세상 바로잡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싸우는
자랑스런 아들딸이잖아요
우리를 가두는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아직 어둠한 새벽 경쾌한 비질소리가 대웅전 앞마당의 정적을 깨고
규칙적인 죽비소리에 맞춰 어김없는 108배
한겨울에도 송글송글 맺히던 땀방울
간절한 그 손끝에 담기던 자유의 염원



국민의 정부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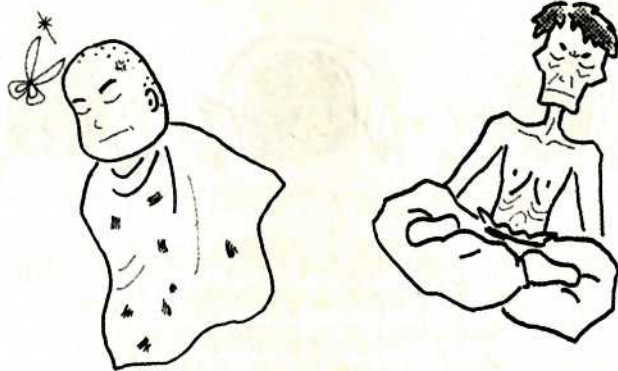
나라 팔아먹은 역적같은 김영삼이와 싸우다 수배자로 내몰린 학생들을 아직도 풀어주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누구보다 치를 떨지만 정작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독도 황금어장 다 팔아먹고, 대책도 없이 일본문화 개방하며 일본군을 끌어들이어서까지 북과 대결하려고 하면서,

IMF 핑계대면서 넘죽넘죽 알짜배기 기업이나 다 내주고 김영삼이 팔아먹은 나라일망정 아예 거덜을 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국민의 정부라구요?



조계사에서 사상 처음 정치집회를 열었습니다
두 번의 문화제를 개최하고 서명운동, 광고투쟁, 삭발투쟁,
단식투쟁, 상도동 진격투쟁, 명동성당 파견투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책위 어르신들의 수고로움, 민가협 어머님들의 애절함, 줄을 이룬 지지의 발걸음...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일본, 호주의 진보적 단체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보니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이렇게 많은 사람, 사람이 모여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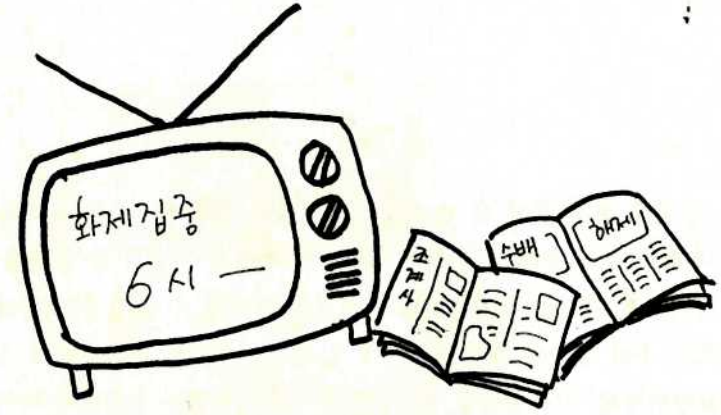
우리 어머니는 입술이 부르텠어요
우리 어머니는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우리 어머니는 법무부 박상천 사무실에서
앰블란스에 실려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따라 투사가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조계사의 농성 선배 현대중기 노동조합 형님들!
 “보수대에게 잡혀갈세라 함께 규찰 돌고 불침번 서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잊을 수 없습니다.”
 이웃집 총각,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준 양군모 동지들!
 “군 문제가 한시 빨리 해결되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길!”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무거운 장비를
 다 짊어지고 달려와 주었던 경희대 치과대 동지들!
 “덕분에 우리는 치통 끝 행복 시작이 되었습니다.”
 답수룩한 머리를 깔끔하게 다듬어주신 미용학원 누님들!
 “고마워요, 개업한 미용실이 번창하시길...”
 뭐니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조계사 처사님들!
 “보이지 않게 애써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시사월간지, 시사주간지,
 종합일간지, 대학신문사, 학교방송국, 하다못해 여성지까지
 우리 농성투쟁이 실리지 않는 곳 없대오
 자료철에 빼곡한 기사모음



우리에게 준법서약서를 들이대지 마시오
 탄압 속에서도 곳곳이 애국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 동지들
 사상전향제를 없애기 위해 수십 평생을 감옥에 바치고 나온 장기구금 양심수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며 옥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 동지들
 우리 앞에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한데 어찌 우리가 준법서약서를 쓸 수 있겠느냐 말이오

•
•
•

김대중 정부 들어 네 번째의 사면이었던 지난 8·15를 지나며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떨어질 수 없음을,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떨어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발벗고 나섰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의 그날까지 굵힘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
•

국민의 정부라며 요란 법석이던 그들은
끝내 우리에게 조건을 들이밀었소
그러나
결코 버릴 수 없는 신념과 의리로
우리는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하였소
그로 인해 얻지 못한 자유
하나도 아깝지 않소
차라리 저 푸른 창살을 택할 테요
영원한 양심의 자유를 위해

•
•
•
終



조계사농성단 다큐멘터리

보이지 않는 창살

•

초겨울 자연은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 돌아가요, 내가 시작했던 처음으로”
새 앞되려 기꺼이 돌아가는 낙엽들...
500여일을 지낸 농성단이 가진 모든 것들에
사람 한 둘 이상은 다 배어 있습니다

•

■ 제작 - 남택진(푸른영상) ■ 분량 60분 ■ 가격 - 25,000원 ■ 문의 - 푸른영상(823-9124)

농성단이 거머온 나날들...

기억 저편, 농성투쟁의 지난날들

1.

더 이상 수배라고 골방에서 쓸쓸히 지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사랑으로 축하해주는 동지들 가득하니



2.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듯
따라서
투쟁은 당연한 만큼 승리하리라



3.

그렇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
우리의 농성투쟁으로 기어이 수배의 사슬을 끊어내리라

4.

생활이 투쟁이다
아침 5시 30분 기상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투쟁은 시작된다

5.

운동의 시작과 끝은 동지를 얻어가는 것이라 했던가
좋은 동지가 있으면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다.



농성단 하루일과

5시 30분	108배 율령정진
6시	마당정소
6시 20분	운동
7시 30분	대침식사 / 9시 조회
12시 30분	점심식사
7시	저녁식사
9시 30분	종례 *시집 '창살이' 간다
10시	잠

농성단이 평안한 날
생 · 반천리 그의 계곡 · 화성시 · 포도원 · 구하리
(매일 밤 12시 30분 경각 수면)

6.

수배를 향처럼 태워 날려버릴 수 있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원하나니
이제 수배는 끝나야 한다. 끝나야 한다 ...

농성단이 걸어온 나날들...



7.

내 아들을 돌려달라, 돌려달라
이젠 눈물 대신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머니는 외친다

8.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삶에 대한 사랑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
그는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9.

부처님도 함께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 투쟁
파사현정의 금강검으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깨뜨려라



10.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외친다
선별구속 어렵었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친다



11.

마당은 쓴다
쓰는 만큼 깨끗해지는 마당
이 더러운 세상도
우리가 쓸어내는 만큼 깨끗해질지니

12.

조국의 부강양성을 위해
나 오늘 배움에 몰두하리
밤아울 새 천년, 통일조국을 위해



13.

하루의 시작하는 건강함,
운동으로 여는 청년들의 힘찬 아침
해처럼 밝아오는 조국의 내일

14.

투쟁으로 깊어만 가는 가을밤
우리 한 자리에 모여
시처럼 읊나니 정치수배 해제!
노래처럼 부르나니 양심수 석방!

15.

기만적 인권정책 눈으로 확인하라,
우리들 삶으로 외치는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를 들으라
엄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



16.

조계사 입성, 농성을 꾸리고
우리의 5대 요구를 당당히 밝힌다



17.

고난의 보랏빛 수건 쓰고
눈물 대신 아들이 싸우던 투쟁의 거리에서
싸우고 외친다

18.

더 이상
우리의 청춘을 끌고 가지 마라
대신
나라를 망친 김영삼을 구속처벌하라

19.

집권 여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우리의 부모님들 수배해제
당당하고 정중하게 요구하신다



20.

10시간 동안 수만 방울의 땀으로 일군
3000배,
인고의 시간 뒤에
햇살 같이 환한 웃음이며,
우리의 길을 밝혀가리



21.

우리에게 동요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약한 마음이 있거들랑
하나된 두 손처럼 고요히 모으리라
이렇듯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
바로 투쟁의 시작이다.

22.

외침은 계속된다
분노는 계속된다
투쟁은 눈빛처럼 빛난다

23.

투쟁은 단단한 바위와 같이,
무쇠와 같이 치켜든 주먹으로 외치는 것

24.

오늘 우리는 한 올 한 올 머리칼을 자른다
비겁과 연민을 잘라낸다
그리고
내일
분노와 투쟁, 희망으로
더욱 싱싱한 풀로 일어서는 머리칼을 보리라

25.

함께 가지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하나된 몸짓, 하나된 함성으로



첫 말...

이건 하나의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 속에 있는 작은 싸움입니다
누구도 우리들의 아름다움과
정당함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우리들의 고뇌와
슬픔에 대해 노래해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우리 자신만이
우리들의 진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 지쳐 쓰러진 벗들을 일으켜줄 수 없다 해도
손 내미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별빛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은 멀으나 심 없이 걷는다면
끝내 봉우리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농성단, 이런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정리 - 이창희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농성단

98년 4월 1일 광주전남지역부터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98년 8월 9일 조계사에 전국의 구 정권 시국관련 수배자들이 조계사에 모여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성 482일째 (99년 12월 5일 현재)를 맞고 있는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의 간략한 투쟁일지입니다.

98년...

- 전국연합,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조계사에서 개최(8월 22일)
-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피에르사네)이 농성단을 찾아 정치수배해제·양심수석방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고 수배해제를 촉구 자필서명을 함.
- 사회단체와 시민학생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조계사에서 개최(9월 13일)

- 전교조, 민가협 등 사회단체 인사와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개최(10월 16일)

- 스웨덴 집권당인 사민당산하 청년위원회 의장(앤더스 란드버그)의 일행이 농성단을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고 지지서명을 함.

- '정치수배해제·양심수전원석방·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4만여명의 시민, 학생이 참여로 최종 마무리(11월 3일까지)

- '의문사 진상규명, 열사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인권대회'를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3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11월 21일)

- 조계사농성 108일째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3천배 진행(11월24일)

- 양심수문제(김영삼정권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준법서약서 철회)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단식 진행(98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

- 양심수문제 완전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선언운동 진행 (12월 9일자 한겨레 신문 하단 광고)

- 인권 및 민주단체의 어르신들 70여분과 '당면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송년오찬 및 다과회'를 가짐 (12월 31일)

- 구정을 맞아 민가협, 수가협 부모님들께 합동 세배를 드림(2월 18일 MBC "화제집중 생방송 6시"에 보도됨)

- 조건없는 수배해제와 양심수 대사면촉구를 위한 공동단식을 전개함(2월 21일부터 2월 25일)

-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문제 전면해결 1차 공청회'를 진행. 각계 어르신 70여분 참가 (2월 23일)

-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각계어르신(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님, 홍근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님, 권오현 민가협 의장님, 이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님 등)들께서 참가하여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조건없는 전면수배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3월 4일)

- 조계사 농성단과 수가협이 주최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연대집회'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함 (3월 5일)

- 수가협, 민가협, 전국연합, 국보철 연대회의, 민권공대위 등이 주최하여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6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법무부앞 항의집회'를 전개함(3월 12일)

- 조계사 농성단과 수가협이 주최하고, 민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국보철 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봄을'이라는 내용의 인권 문화제가 1200여명 넘게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림. (3월 20일)*

99년...

- 김영삼 전대통령 경제청문회 출두와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해제를 위한 상도동 김영삼 자택 진격투쟁 진행 (1월 14일 이영수, 김재돈 상도터널 앞에서 10분여 동안 진행하다 연행됨)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 집회'를 탑골공원에서 진행 (1월 14일)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과 인권공대위와 신년 첫 공동 인권연대투쟁으로 진행

-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참여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한민전 영남위 대책위 등과 같이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구성 (1월 28일), 28일부터 매주 민가협 목요일집회를 상징적 인권투쟁으로 만들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1차 인권대회를 종묘공원에서 각 사회단체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함 (2월 6일)

농성단이 기억은 나날들..

-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특별건의문을 채택함 (3월 31일)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단(강내희, 락노현, 오수성, 유초하, 장상환 교수님)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대통령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함 (4월 1일)
- “정치수배해제를 거부하는公安검찰규탄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검찰청앞 집회”를 민가협, 수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회원 40여명이 함께 하여 진행함 (4월 13일)
-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수가협 부모님들과 민가협 어머님, 장기수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계사 농성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짐. (5월 7일-다음날 KBS 아침 뉴스광장에 보도됨)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전남대, 성공회대, 상지대 등 6개 대학 총장님 등이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500여명이 참가하여 “제 1회 불교인권문화제”를 치름. 이 자리에서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 1080인이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올바른 인권법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선언을 함.
- 5월 21일 조계사 농성단이 당일 3천배를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십만배쌓기운동”에 들어 감.
- 6월 6일 조계사 대웅전 옆에서 전농 의장님 등 어르신들과 학생들을 모아 연인원 350여명이

- 참가하여 조계사 수배해제 농성 300일(6월 4일)을 맞이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하루찾집 및 작은 콘서트” 진행.
- 7월 1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당면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목요집회”를 민가협,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개최함.
- 7월 3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소속회원 582명(대표: 김상근 목사님, 함세웅 신부님, 청화스님, 김현 교무님 등 기독교 184명, 천주교 224명, 불교 113명, 원불교 61명)이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냄.
-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차로 최영도 회장님과 간부진 일등을 비롯한 85명이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냄.
- 7월 8일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범불교도 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범불교도 1080인 탄원서(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민병천 불교바로세우기 고문, 배영진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님 등께서 동참하심)를 제출함.
- 7월 17일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라는 제하로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행동연대와 함께 신문 5만부 발행.
-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동안 민가협, 한학협과 함께 향의방문 및 거리캠페인 등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집중투쟁”을 진행함.

- 7월 31일 저녁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불교 통일문화제에 결합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10만배쌓기운동”을 결속지음.
-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옥중 양심수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건없는 양심수석방 및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3차 공동단식투쟁을 전개함.
- 8월 9일 조계사 농성 1주년을 맞이하여 민가협과 함께 약식 집회를 갖고 청와대 향의방문을 전개함.
- 8월 12일 김승훈, 김진균, 변형운, 서영훈, 이돈명, 한완상 등 재야원로들께서 대통령께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함.
- 8월 12일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가협, 수가협, 참여연대, 녹색연합, 천주교인권위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조건없는 양심수석방·수배해제촉구, 김현철 변칙사면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짐.
- 8월 13일 8.15사면발표직후 김현철 변칙사면반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향의 집회를 정부종합청사 뒷편에서 민가협과 가짐. (집회후 김현철 집앞으로 향의방문을 감)
- 8월 27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당면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집회를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등과 함께 가짐.
- 9월 11일 ‘국가보안법 철폐 1차 국민대회’를 행동연대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열고 400여명이 조계사로 행진하여 정리집회를 하고 마침.

- 9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촉구 법회를 100여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가짐.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불교연대와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가짐)
- 9월 19일 조계사 농성천막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합동차례를 가짐.
- 10월 중순부터 일요일마다 조계사 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서명전”을 전개.
- 10월 3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1500여명이 참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자 선언’을 조직하여 ‘3차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낭독하고, 당일 한겨레 신문광고로 게재함.
- 12월 5일 정치수배해제투쟁 영상기록물인 “보이지 않는 창살 (푸른 영상 제작)”시사회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가짐.

정치수배자가족협의회

- 수배해제 대책위와 함께 수시로 검찰, 법무부 등 정부당국과의 면담 진행
-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수석방을 시와 노래의 밤 결합 등 제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진행
-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 결성, 수배해제촉구 기자회견 가짐.(98년 10월 26일)

- 국민회의 및 여타 정당방문 활동을 벌임, 당직 자들과 면담 진행
- 민가협 회원들과 대통령부부의 면담 자리에 수가협 부모님(농성단 단장 오창규군 어머니)이 참가함
- 수가협 부모님들이 종교계(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지도자들과 만나 탄원운동 진행(99년 1월 넷째주), 이러한 노력속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께서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에 대해 건의를 드림.(99년 2월 8일)
- 민가협과 함께 수가협, 한학협, 영남위 대책위원 등이 동참하여 “조건없는 양심수석방과 대사면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함.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 촉구의 내용에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미복권자의 복권 등이 담겨져 있음. 99년 2월 첫째주부터 2월말까지 진행)
- 민가협과 수가협 등이 함께 국회의원 및 각계 원로인사분들을 대상으로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전개 (99년 2월 첫째주, 둘째주 진행)
- 99년 2월 10일 민가협 사면, 복권 신고센터에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명단을 제출하여, 민가협, 수가협 부모님들과 함께 청와대, 법무부, 국민회의에 직접 접수시킴
- 99년 2월 26일 ‘고압적이고 애매한 수배문제처리’에 항의하기위해 국회의원회관 법무부장관 박상천 의원사무실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던 중 국

- 회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남. 이 과정에서 어머니 1분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함
- 99년 3월 4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별구속반대 등 ‘조건없는 전면수배해제’를 유구하며 법무부 항의방문 진행.(3월 8일은 법무부 민원실 방문을 가로막는 전경에 의해 부모님 몇 분이 찰과상을 입음), 이러한 결과로 결국 3월 12일 대책위 어른 4분과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 짐.
- 99년 3월 17일 수가협 부모님들과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님이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님과 면담. 총무원장님은 다음날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해 전원 불구속수사, 기소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께 올림. 또한 총무원장님께서 재차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해제를 건의함 (99년 3월 23일)
- 99년 4월 8,9일 이틀에 걸쳐 수가협과 민가협 부모님들께서 정치수배해제를 전면거부하는 공안검찰에 항의하고자 검찰청 항의방문을 전개함.
- 99년 5월 19일 조계사 농성단 천막을 방문한 국민회의 유선호 인권위원장과 대책위 어르신, 수가협 부모님들이 면담.
- 99년 6월 7일 수가협 부모님들이 국민회의, 검찰청 면담요구투쟁을 전개.
- 99년 6월 19일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구 정권하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대책위원이신 이창복 의장님께서 저희 문제해결을 요구함.
- 99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청와대 및 국민회의, 법무부, 검찰청 방문투쟁을 전개.

- 99년 7월 7일 구 정권하 정치수배해제 대책위원이신 이창복의장님과 진관스님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가협, 수가협, 대책위 명의의 수배해제 촉구서한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탄원서를 직접 전달하고 오심. 7월 10일 대책위원이신 권오현의장님과 이덕우 변호사님이 민정수석과 직접 면담. (범불교도 1080인 탄원서 전달함)

- 99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에 걸쳐서 국민회의, 법무부, 검찰청 등을 방문하며 수가협 2차 집중활동을 전개함. (8월 10일은 청와대 항의방문 중 경찰에 모두 연행되어 종로경찰서를 거쳐 은평경찰서로 압송되어 당일 풀려남)

- 수가협 부모님들은 8.15의 기만적 사면국면이후에도 계속 목요집회를 중심으로 실천투쟁을 전개.

수배해제를 위한 청와대와의 최종 합의내용

12월 둘째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임삼진 국장의 방문으로 청와대와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몇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고 이에 기반해 12월 21일 일괄 출두함으로써 농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청와대와의 합의사항

1. 새 천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과 화해의 정신에 기초해 김영삼정권시절 정치수배자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한다.
2. 구정권 수배자 42명중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임하면 36명은 불구속처리하고, 나머지 6명(오창규, 유병문, 진재영, 최태진, 유영업, 최원석)은 일차적으로 구속조사한다. 구속된 6명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자진출석 후 술회를 제출하며 술회의 형식과 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조계사 농성 500일 성명서

김영삼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항거하다 정치수배된 사람들이 조계사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도 500일이 되었다. 정치수배의 해제없이 계절이 여섯 번 바뀌고 3번의 사면이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사 농성단은 온갖 좌절과 난관을 극복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농성을 전개하였다.

우리의 농성투쟁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커다란 획을 남겼다. 소수의 미비한 힘으로 시작하였지만 삭발, 단식 등의 완강한 의지표현과 부모님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정치수배해제 투쟁은 국민들의 발전된 민주적 의식에 기반하여 점차로 커다란 힘을 지니게 되었다. 조계사 사부대중을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협조를 보냈고, 다양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여론화되었다. 구정권 시절 정치수배해제 투쟁은 일관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의 대의를 함께 외침으로 인권영역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투쟁으로 자리하였다. 마침내 조계사 농성천막은 인권운동의 기지이자, 한국민주주의의 초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다. 온 국민은 새 세기에는 더 이상 열사도,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민주주의의 세기가 오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자들은 이러한 부름에 화답하여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농성투쟁 500일을 맞아 기간의 투쟁과 협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짓고 새롭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과거 정권의 부정비리에 저항하다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이 도피를 넘어, 오랜 기간 굶힘없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외쳐서 정치수배를 국민의 힘으로 해결한 우리의 농성투쟁은 향후 정치수배해제 투쟁의 긍정적 선례로 크게 남을 것이다. 비록 몇 사람의 구속자가 발생하였으나, 인권의 새 세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이 있는 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들의 양심과 권리를 굶히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오늘의 결과는 올바른 인권을 외치는 양심적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에게 기쁨이자, 큰 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기간 투쟁과 협상과정에서 일구어온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에 대한 “조건 없는 최대한의 불구속수사와 6인의 구속대상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새 천년을 맞아 다른 어느 면보다 ‘인권 정부’가 되기를 스스로 바라는 ‘국민의 정부’는 우리에게 충분한 근거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여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반대편에 자리하는 비극적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조계사 농성투쟁을 마감하고 자진출두를 통한 구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새로운 투쟁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우리의 투쟁은 몇몇 구속자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오늘 농성천막이 없어진다고 결코 투쟁이 멈춰진 것이 아니다. 더욱 많은 애국인사 및 사회단체들의 연대투쟁을 바라며,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힘있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모든 정치수배해제”의 깃발아래 우리 투쟁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1999년 12월 21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청년의 자유를 가둔 것들

